

부문별 주요 기사

5월 1일~5월 3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부문별 주요 기사

5월 1일~5월 31일

대내경제 77

<시장 및 물가>

상업광고가 본격화 되고 작은 상점들을 통해 시장화가 진행되는 북한

<식량 및 영양>

당초 예상보다 식량 상황이 개선된 듯한 북한

<공식경제>

'70일 전투'의 성과

'70일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0일 전투'에 돌입한 북한

대외경제 79

<대북제재>

스위스, 독자적 대북제재로 압박 강화

유럽연합, 추가 대북제재 발표

기타 국가의 대북제재

<북중관계>

4월 들어 대폭 감소한 북중무역

북중 석탄 거래량 감소

<북러관계>

감소세의 북러무역

<해외노동자>

해외에 파견된 북한노동자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대북제재의 영향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남북교류 83

<남북교역>

사실상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교류

대내경제

<시장 및 물가>

중앙일보(5.7), KBS(5.18)

상업광고가 본격화 되고 작은 상점들을 통해 시장화가 진행되는 북한

영국 『BBC』는 평양에 2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스카이라인이 생기며 작은 상점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며 북한 경제에 ‘미니 붐’이 일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대부분의 주민들이 먹거리를 자유롭게 상점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 게다가 북한은 경제특구 등을 통한 산업개혁, 국가 운영 농장에서 개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등 점진적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임.

한편, 북한에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상업 광고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최근 노동당대회 취재차 평양에 간 서방 언론에 따르면, 건강식품, 생활용품, 게임 등 다양한 광고가 눈에 띈다고 보도함. 하지만 광고는 조악한 수준이며 상가에서만 돌아 다닐뿐 옥외 간판은 여전히 김정은 체제 찬양 일색이라고 전함.

<식량 및 영양>

CBS노컷뉴스(5.10), 연합뉴스(5.28)

당초 예상보다 식량 상황이 개선된 듯한 북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량 추정치를 150만톤에서 30만톤 증가한 180만톤으로 수정함. 여기에 북한이 수입 예정인 10만톤을 더하면 총 190만톤의 쌀을 확보하게 된다고 분석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사 대상인 아시아 14개국 중 쌀이 가장 부족한 나라라고 FAO는 밝힘.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의 2015년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70% 급감함. GS&J의 「2015년 북중 곡물 교역 동향」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4만 7,300여 톤으로 2014년 약 16만톤에 비해 7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북한의 자체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변한 것으로 분석됨.

〈공식경제〉

news1(5.1), 노동신문(5.1, 5.3), 머니투데이(5.6), 노동신문(5.7), 동아일보(5.9), 노동신문(5.17), 세계일보(5.30)

‘70일 전투’의 성과 - 전력과 농업 분야

노동신문에 나타난 70일 전투의 주요 성과로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발전소에 대한 소식이 많았는데, 특히 강원도 지역의 원산군민발전소와 홍주청년3호발전소 그리고 서두수상류의 백수단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 소식을 다룸. 발전소를 통해 부족한 전력과 주민 생활용수, 공업 및 관개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음. 그 외에도 농업 분야에서의 활용될 수 있는 기술-대용 농약 생산, 산림기계, 트랙-을 새로운 기술, 특히 자강력으로 개발한 것을 강조함.

‘70일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0일 전투’에 돌입한 북한

북한은 36년 만의 제7차 노동당 대회 개막에 맞춰 2월 중순부터 ‘70일 전투’를 진행해 온 바 있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전국적으로 1,640여 개의 생산단위들이 70일 전투 목표를 돌파했다고 주장함. 특히 공업생산액이 목표치의 144% 초과 달성하고, 생산이 1.6배 늘어났다고 밝힘.

북한은 속도전인 ‘70일 전투’를 끝낸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00일 전투’에 돌입함. 『조선중앙통신』은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 200일 전투가 선포되었다고 보도함. 북한은 당 대회를 열 때마다 경제계획을 발표해 온 바 있음. 다만 이번 경제계획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번 전략이 구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대외경제

<대북제재>

Swissinfo(5.18), Radio Free Asia(5.19), 동아일보(5.25), 대전일보(5.25), Reuters(5.27), New York Times(5.27), 환구시보(5.28).

스위스, 독자적 대북제재로 압박 강화

스위스 연방정부가 올해 1월부터 지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독자제재'를 발표함. 금융, 금수 품목 확대, 해상·항공 운항, 교육 등이 포함된 이번 스위스의 제재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됨. 금융 부분 관련해선 북한 관련 자산동결과 금융 서비스가 금지되고 스위스 내 북한은행 지점과 계좌는 6월 2일까지 폐쇄해야 함. 더 많은 사치품이 포함된 금수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며, 대북 수출입 전 품목에 대한 통관 검사가 진행될 계획임. 항공유와 관련된 북한과의 거래는 일체 금지되며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교육에 대한 북한인의 수강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임.

유럽연합, 추가 대북제재 발표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 27일 각료이사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단행함. EU가 추가 제재를 단행한 분야는 크게 무역, 금융, 투자, 운송 등 총 4개 부문임. 교역 분야의 경우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 등의 물품을 추가하고, 석유 관련 제품과 사치품 거래를 전면 금지함. 투자 분야에선 유럽연합 회원국가 내 북한의 모든 투자를 제한하고, 북한 내 광업, 정제업, 화학 관련 업종에 관한 투자를 일절 금지함. 또한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EU 28개 회원국 통과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2016. 5. 5, 개인 16명과 단체 12개가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랐음. 2016. 5. 19 기준, 제재대상은 개인 66명과 단체 42개로 늘었으며, 제재대상의 EU내 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함. 일부 전문가들은 2004년 북한과 유럽의 교역액이 300만유로에서 2014년 34만유로로 약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이번 제재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기타 국가의 대북제재

5월 23일 미국과 베트남은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전면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힘. 한미 양국이 결의안 이행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북중관계〉

CBS노컷뉴스(5.14), 연합뉴스(5.23), Reuters(5.23), 조선일보(5.25)

4월 들어 대폭 감소한 북중무역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가 4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대북제재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발효에도 불구하고, 3월 무역량이 늘어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음.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1억 6,1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3% 감소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액은 2억 6,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함.

북중 석탄 거래량 감소

지난 4월 5일 북한의 주요 수출 광물이 포함된 금수 품목을 발표 했었던 중국이 4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공개함.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4월 북중 석탄 무역량은 153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작년 동월(약 192만톤) 대비 20.5% 감소했으며, 지난달 거래량(약 234만톤)과 비교하면 35% 이상 감소한 수치임. 중국 세관은 민생목적을 위한 북한과의 광물거래는 여전히 유효하며, 몽골산 석탄같이 북한을 통해 수입되는 제3국의 광물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북·중 4월 무역액〉

(단위: 백만달러, %)

	대중수출	대중수입
2015년	208(-8.0)	272(-9.6)
2016년	161(-22.3)	268(-1.5)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16. 6. 1.

〈북러관계〉

서울신문(5.7), CBS노컷뉴스(5.14)

감소세의 북러무역

러시아 연방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지난 1분기에 약 1,675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무려 5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의 대러 수입은 약 1,330만달러였으며, 이중 1,100만달러가 광물성 연료 수입이었음. 북한의 대러 수출은 33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함.

한편,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금융 거래를 전면 동결하고 북한산 광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함. 다만 러시아와 북한 간 철도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복합 물류사업’은 예외로 함. 2016년 1분기에 러시아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은 바 있음.

<해외노동자>

CBS노컷뉴스(5.4), news1(5.18), 시사일보(5.23), 데일리한국(5.24), newsis(5.25)

해외에 파견된 북한노동자

랄프로렌, 버버리 등 세계적인 명품 의류업체들의 중국 하청 업체 공장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고용돼 일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함. 대표적으로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의류제조 대기업인 ‘메이다오복장유한공사’가 북한노동자를 대거로 고용했다고 전함. 의류업체 뿐만 아니라 강화유리 제조업체 ‘란쓰커지사’도 북한 노동자 채용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북한이 유럽에서 강제 노역하는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매년 2조원 안팎의 송금을 받는다는 증언이 나옴. 다큐멘터리 ‘Cash for Kim’을 제작한 렘코 브뢰커 교수는 온라인 매체 『바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공산당은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연평균 총 10~13억파운드(1조 8천억~2조 2천억원)를 가져간다고 추산함.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대북제재의 영향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일부가 최근 철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쿠웨이트, 앙골라 등의 국가가 대북제재로 인해 철수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게다가 많은 국가가 금융제재까지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파견 근로자가 북한에 송금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외교 당국 및 북한인권 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5~6만명, 최대 10여 만명을 40여 개국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adio Free Asia(5.9), 헤럴드경제(5.12), CBS노컷뉴스(5.12, 5.18), 연합뉴스(5.26), 데일리한국(5.27)

아래 표는 5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캐나다 (퍼스트 스텝스)	2016년	두유 · 영양소	매주콩 200톤 영양가루 720만포	두유 제조를 위한 매주콩,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 가루
세계식량계획	2016년 4월	영양강화식품	1950톤	64만여명에게 분배 목표인 1만톤에는 크게 미달
독일 (IFOAM)	2018년 까지	유기농업 체계 구축	45만유로 (51만달러)	유럽연합에서 지원
러시아	2016년 5월	밀가루	2,400톤	인도적 차원 지원
국제적십자사	2016년 5월	천막과 위생용품	45만달러	농촌가뭄 · 홍수대비 지원
인도	2016년	지원금	100만달러	WFP에서 진행하는 대북사업에 지원

남북교류

<남북교역>

조선일보(5.13), 한겨레(5.27)

사실상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교류

통일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이후 3월부터 남북 교역액은 '0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2015년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는 2014년 보다 30% 증가한 254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정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접촉도 100% 불허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대북지원 단체들의 북한주민 접촉이 100% 불가능해짐. 이에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인도적 지원이 모두 닫힌 만큼 올해 남북 교역액은 사상 최저치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함.

기사 원문 리스트

- [2016.5.01] 北 "1640여개 부문서 '70일 전투' 목표 돌파" (news1)
- [2016.5.01]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 원산군민발전소 준공식 진행 (노동신문)
- [2016.5.01] 홍주청년3호발전소 1호발전기 조기조업 (노동신문)
- [2016.5.01] 불패의 청년대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서 (노동신문)
- [2016.5.03] 5종의 산림기계를 연구개발 (노동신문)
- [2016.5.04] 北, 해외 근로자 일부 철수...대북 제재 영향? (CBS노컷뉴스)
- [2016.5.06] 北 "공업생산액 144% 초과달성.70일 전투서 영예로운 대승리 (머니투데이)
- [2016.5.07] BBC "북한에 작은 상점들 생겨 ... 경제 미니 붐 일고 있다" (중앙일보)
- [2016.5.07] 러, 대북 금융거래 동결 북한산 광물 수입 중단 (서울신문)
- [2016.5.07] 80hp 트랙도르 시제품 생산, 시운전 진행 금성트랙도르 공장에서 (노동신문)
- [2016.5.09] 개혁-개방조치 없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동아일보)
- [2016.5.09] 캐나다 NGO, 북에 두유·영양소 지원 (Radio Free Asia)
- [2016.5.10] 북한, 대중 곡물 수입 70%급감...'좋은 작황' 때문 (CBS노컷뉴스)
- [2016.5.12] WFP, 지난달 북한에 식량 1950t 지원 (헤럴드경제)
- [2016.5.12] 독일 NGO, "북한서 유기농업 체계 구축 사업 진행" (CBS노컷뉴스)
- [2016.5.13] 올해 남북 교역액 사실상 '0'에 가까울 듯 (조선일보)
- [2016.5.14] 北, 중국 단둥-신의주 트럭 운행 횟수 감소..."대북 제재 영향" (CBS노컷뉴스)
- [2016.5.14] 러시아, 올 1분기 대북 수출 54% 감소 (CBS노컷뉴스)
- [2016.5.17] 효능높은 대용농약 사리원 과수농장에서 (노동신문)
- [2016.5.18] 건강식품·영양제...북한 상업광고 본격화 조짐 (KBS)
- [2016.5.18] 러시아, "대북지원 밀가루 2천400여톤 北 청진항 도착" (CBS노컷뉴스)
- [2016.5.18] "랄프로렌, 버버리 中하청 공장에 北노동자 대거 고용" (news1)
- [2016.5.18] North Korea faces long list of Swiss sanctions (Swissinfo)
- [2016.5.19] 스위스, 북 자산 동결·계좌 폐쇄 전격 단행 (Radio Free Asia)
- [2016.5.20] 국제사회 對北 금융봉쇄 확산... 김정은 '돈줄' 말라간다 (문화일보)
- [2016.5.20] 스위스-러시아 대북 금융봉쇄 잇단 동참...北고립 가속화 (데일리한국)
- [2016.5.23] 원자재가 하락·대북제재 영향...北-中 무역규모 14.7%↓ (연합뉴스)
- [2016.5.23] 러시아 對北 금융 강력제재 北근로자 외화벌이 '직격탄' (시사일보)
- [2016.5.23] China coal imports from North Korea dip 35 percent as sanctions bite (Reuters)

- [2016.5.24] "EU 곳곳에 북한 노동자...매년 북한에 2조원 보내" (데일리한국)
- [2016.5.25] 중국, 對北 수입액 22.3% 급감 (조선일보)
- [2016.5.25] 스위스,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 품목 (동아일보)
- [2016.5.25] 美 - 베트남 '동맹' 北제재 나선다 (대전일보)
- [2016.5.25] "북한은 세계최대 직업소개소...유럽내 북 노동자 연 2조원 벌이" (newsis)
- [2016.5.26] "국제적십자, 北농촌 가뭄·홍수 대비 지원" (연합뉴스)
- [2016.5.27] "인도, WFP 대북사업에 100만 달러 지원" (데일리한국)
- [2016.5.27] Europe steps up North Korea sanctions with oil, finance bans (Reuters)
- [2016.5.27]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접촉도 100% 불허...2000년 이후 처음 (한겨레)
- [2016.5.27] EU Imposes More Airplane, Shipping Sanctions on North Korea (New york times)
- [2016.5.28] FAO "북한 작년 쌀수확량 180만t 추정" (연합뉴스)
- [2016.5.28] EU adopts new restrictions on trade against DPRK (환구시보)
- [2016.5.30] 북, 또 속도전... 이번엔 '200일 전투' 돌입 (세계일보)